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6

I. 일반개황

면적	1,285천 Km ²	G D P	1,538억 달러(2010년)
인구	29.5백만 명(2010년)	1 인 당 GDP	5,140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uevo Sol(NS)
대외정책	실리주의 경제외교	환율(달러당)	2.83(2010년 말)

- 페루는 남미 중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해안선을 따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달리는 5,000m 이상의 안데스산맥이 국토를 3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동국은 약 3,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남미에서 3번째로 광활한 영토(한반도의 약 6배)를 보유함. 또한, 천연가스, 금, 동, 아연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
- 최근 수년간 대외경제여건 호조에 따른 수출 증대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국가신인도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고도 성장세, 다소 둔화 전망

- 페루 경제는 국제 광물가격 호조 지속에 따른 금 및 동의 수출 증가, 까미세아 천연 가스전 개발,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007~08년 동안 8.9%~9.8%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위축되어 2009년에는 0.9%의 저성장에 그침.
- 그러나 2010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금, 동 등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8.8%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음.
- 국제 금 가격 추이(1온스 당) : US\$834 ('07) → US\$870 ('08) → US\$1,088 ('09) → US\$1,406 ('10) → US\$1,659 ('11. 9월)
- 고도 성장세가 지속되자 경기 과열을 우려한 페루 정부가 긴축 정책을 강화하면서 2011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최근 14개월 동안 가장 낮은 5.3%를 기록하는 등 고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출 호조 및 내수 성장에 힘입어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안정적이나 상승 압력 확대

- 페루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0% 기준으로 상하1%(1.0%~3.0%) 이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9.8%에 이르는 등 경기 과열로 인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5.8%에 이르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하락세로 전환되어 2009년에는 2.9%로

낮아졌음.

- 2010년에는 경기 과열을 우려한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강화와 누에보 솔화의 강제 지속으로 인한 수입 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를 기록함.
- 그러나 2011년 들어 내수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7월 28일 출범한 신임 우말라 정부가 최저 임금 인상(25%) 조치를 추진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페루 중앙은행이 5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하는(2011년 9월 현재 4.25%) 등 긴축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금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억제 목표치인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신중한 재정운영과 세수확대에 힘입어 재정수지 목표 달성

- 페루는 2003년 5월 비금융공공분야(NFPS) 적자 한도를 GDP의 1%로 설정함. 또한,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책임투명성법(Fis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Law)을 제정하고, 세수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상(18%→19%) 및 법인세율 인상(27%→30%) 등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후 재정수지가 개선 추세를 보임.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제 성 장 률	8.9	9.8	0.9	8.8	6.5
재 정 수 지 / GDP	3.2	2.2	-1.9	-0.6	-0.4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1.8	5.8	2.9	1.5	2.9

단위: %

자료: IMF, EIU.

-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개혁조치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로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보이던 재정수지가 2006년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7~08년에도 정부의 신중한 재정운영과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로 흑자기조가 지속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대로 인해 2009년에는 다시 적자(GDP의-1.9%)로 전환되었고, 2010년에는 경제성장세 회복과 광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재정책임투명성법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GDP의 -0.6%)하였음.
- 2011년에도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21.9%로 낮아짐에 따라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졌고,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수지 목표(GDP의 -0.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 광업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페루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15억 달러 규모의 까미세아 가스전 개발이 페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광업계의 직접 고용 인력은 6만 7천명, 간접고용 인원은 33만 5천명에 달하며 관련 업종 고용 인구는 총150만명으로 페루 총 인구의 약 5.4%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광업이 페루 수출 및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의 60%이상)이 커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임.

□ 인프라 부족

- 2011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페루는 총 142국 중 67위를 차지하였는데, 인프라 전반에 대한 평가 순위는 142개국 중 105위를 기록하는 등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전체 도로 78,554km 중 포장된 도로는 14.4%에 불과하며, 도시 교통이 매우 혼잡함. 또한 페루의 대중교통수단의 75% 이상이 20년 이상 낙후된 상태임.
- 또한, 전화, 인터넷 등 통신인프라의 보급률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음. 특히, 유선전화의 보급률은 9.2%에 불과하는 등 GDP 규모가 페루보다 작은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보다도 낮은 수준임.

나. 성장 잠재력

□ 남미의 자원 부국

- 페루는 은(1위), 구리(2위), 아연(3위), 주석(3위), 폴리브덴(4위), 금(8위) 등의 매장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남미의 자원부국임. 특히,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은 세계 매장량의 3.9%에 해당하는 2천 톤이 매장되어 있음.
- 한편, 광물자원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광물자원 생산량도 활발하여 세계 광물자원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생산량 기준으로 은(1위), 구리(2위), 아연(2위), 주석(3위), 납(4위), 금(6위) 등 생산량도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페루는 또한 남미 제7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까미세아 가스전 개발 (17억 달러)로 일일 약 217.8백만 입방 피트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까미세아 유전에서 국내소비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천연가스가 생산됨에 따라 주에너지원을 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가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탐사 지역이 전 국토의 9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 아니라 일반광업법(Ley General de Minería)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어서 페루 광업 시장의 향후 전망 또한 밝음.

□ 풍부한 수산 자원 보유

- 페루는 태평양 연안의 3,08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더불어 두 난류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으로 어종이 다양하고 풍부함. 페루는 어분(fish meal) 및 어유(fish oil) 생산, 수출 1위의 자리를 고수하며 전 세계 소비량의 1/3 가량을 공급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광업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페루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투자, 소득,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이에, 페루 정부는 광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반광업법(Ley General de Minería)을 개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동 법에 의하면 광물부문 투자 기업은 배당금, 로열티 등의 해외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 계획시 투자기업은 페루 정부와 경영안정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광물 부문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으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함.

□ FTA 협상 활발

- 2006년 6월 28일 페루 의회는 2004년 5월부터 거의 2년 간의 협상 끝에 2006년 4월12일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총 120명 중 99명이 찬성하여 찬성79표, 반대14표, 기권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비준하였으며, 미국 의회도 2007년 11월 최종 비준함으로써 페루-미국 FTA는 본격 발효되었음.
- 미국은 페루의 주요 수출국가로서 페루 수출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페루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구리, 금 등 광물자원 및 천연가스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2011년까지 총 수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페루는 EU, 캐나다,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중국과 우리나라와도 체결함.(2010년 8월)

3. 대외거래

□ 수출입 증가세 지속

- 페루는 1차 상품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동, 금, 아연 등 광물자원 및 수산물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광물 자원의 수출은 총수출액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산물의 수출이 7%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제 광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근 5년간 광물 수출은 연평균 20% 증가하며 2005년 98억 달러에서 2010년 217억 달러로 배 이상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동 및 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미국과 FTA 발효(2007년 11월)에 따라 커피, 감자 등의 농산물 및 면, 모 등의 섬유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최근 수년 간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200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0년 들어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인 35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11년에는 국제 광물 가격의 상승세 지속으로 수출이 4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고도 성장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광업 및 가스전 개발 투자자들의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음. 2009년에는 수입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288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경기 호황으로 수입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1년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 2004~07년 동안 광물 수출 호조 지속으로 상품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8년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다국적 광업회사들의 과실 송금 및 외채 조기 상환 등으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5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됨.
- 2009년에는 상품수지가 59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다시 소규모 흑자(GDP의 0.2%인 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소규모 적자(GDP의 1.5%인 23억 달러)로 반전되었음.

- 2011년에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GDP의 1.7%인 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DI 유입 지속 전망

- 17억 달러 규모의 까미세아 천연가스전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FDI 유입 실적은 2005년 26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6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2009년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FDI 유입액이 56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1,363	-4,723	247	-2,315	-2,859
경 상 수 지 / G D P	1.1	-4.2	0.2	-1.5	-1.7
상 품 수 지	8,287	3,091	5,874	6,750	5,812
수 출	27,882	31,529	26,885	35,565	42,198
수 입	19,595	28,439	21,011	28,815	36,386
외 환 보 유 액	26,853	30,263	31,000	41,653	53,278
총 외 채 잔 액	28,422	27,881	29,593	34,944	39,188
총 외 채 잔 액 / G D P	26.5	22.0	23.3	22.8	22.9
D. S. R.	24.9	12.7	10.9	13.6	7.0

자료: IFS, EIU.

□ 외채 상환 호전

- 2010년 말 현재 총 외채규모는 GDP의 22.8%인 349억 달러에 불과함. 최근 수년간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국의 외채 상환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D.S.R.은 2007년에 24.9%로 높아졌는데, 이는 파리클럽 채무의 조기 상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고, 2008~10년 D.S.R.은 10%~13%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2011년에는 7.0%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꾸준히 증가

- 수출증가와 FDI유입 증대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417억 달러로 1년 만에 107억 달러가 증가하였음.
- 현재 페루는 외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당분간 외환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7월 28일 우말라 정부 출범

- 2011년 6월 5일 실시된 대선에서 좌파인 '페루 승리(Gana Peru)'당의 오안따 우말라(Ollanta Humala) 후보가 우파 '푸에르사(Fuerza 2001)'당의 대선 후보이자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를 근소한 표차(3%)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 우말라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 2005년에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2006년 6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급진좌파 민족주의자인 '페루 민족주의'(PNP)당의 대선 후보로 대권에 도전하였으나, 당시 중도좌파 '아프라(APRA)'당의 후보였던 전임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에 대권을 내주었음.
- 2011년 대선에서 좌파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향후 페루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페루 주식시장은 폭락하였음. 그러나 우말라 대통령은 과거 강경우파이자 친시장주의 성향의 정권인 툼레도 정부의 경제 관료들을 중용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 그러나, 우말라 대통령이 전임정권의 친시장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중도좌파적인 성향을 견지함에 따라,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위해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 집행을 요구하는 집권당의 급진좌파 세력과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 우말라 대통령 정부는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확충과 거시 경제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광물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되, 광물 산업 부문의 세금 인상을 통해 소득 분배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인상(25%), 극빈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되, 전임 정부의 신중한 재정운영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지역간, 계층간, 인종간 빈부격차 상존

- 2010년 UNDP의 조사에 의하면 페루 국민의 31.3%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절대 빈곤층은 9.8%에 이룸. 지니계수가 0.48에 달하고 상위10%가 전체 국부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계층간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디오의 대부분이 안데스 고원 지대와 동부 밀립 지대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반면에 메스티조와 백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해안 저지대의 도시에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밀집하여 있어 지역간, 인종간 빈부격차가 심하여, 빈곤으로부터 파생하는 치안 불안 문제 등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세계2위의 코카인 생산지로 마약 밀매로 인한 치안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 교원 노조, 의료분야 노조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총파업과 광산 지대를 중심으로 민영화 반대 시위도 빈발하나, 게릴라 단체의 활동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며, 내전이나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임.

3. 국제관계

□ 미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는 대체로 양호

- 페루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국경지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콜롬비아 게릴라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제외하고는 주변국과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신임 우말라 대통령은 전통 우방국인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주변 중남미 국가들과의 지역적 통합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해상영토 분쟁으로 전통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칠레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상환 태도 양호

- 동국은 1986년 9월 국제 상업은행단과의 외채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원리금 상환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국제기관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한 동안 신규차입이 동결되었음.
- 그러나 1990년 출범한 후지모리 정부가 IMF가 제시한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외채상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1996년 이후 신규차입이 재개되는 등 국제신인도가 개선됨.

□ 글로벌 본드 발행 등을 통한 채무스왑 및 조기상환 실시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으로 2002년 2월에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또한, 국제금리 하락을 활용하여 12억 달러의 브래디 본드를 신규 글로벌 본드와 스왑하여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켰음.
- 한편, 2005년 6월에도 동국은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 80억 달러 중 2009년 12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원금 20억 달러를 조기상환하였음. 동국은 이를 위해 7.5억 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한편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현지화로 4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 하였는바, 이는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외채상환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외채는 현지화 표시 내국채로 전환됨에 따라 환리스크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2007년 5월에는 우리스 까란사 재무장관이 파리클럽 외채 57.5억 달러 중 2007~15년 동안 기일이 도래하는 외채 25억 달러의 조기상환계획을 발표하였고, 파리클럽 회원국이 페루의 조기상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10월 1일자로 조기상환이 실시되었음.

2. 국제시장평가

□ 국가신용등급 지속 상승

- 2005년 6월 OECD는 동국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파리클럽과의 채무관계 호전으로 외채 부담이 완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조정하였음.
- S&P도 2005년 7월에 동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페루의 경제성장 호조 지속과 국가채무부담 감소 추세 및 정치적 안정을 반영해 종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음.
- Moody's도 2007년 7월 페루의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따른 외화보유고 증가 및 대외채무 감축 정책 등으로 대외채무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대외부담 취약성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종전 Ba3에서 B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음.

□ 2008년 이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

- 2008년4월 Fitch는 적극적 재정 및 외채관리능력 향상 및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공공부문의 경우 순채권국이 되었으며,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페루의 국가등급을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1.9)	B2 (2010.11)
OECD	3등급 (2011.7)	3등급 (2010.6)
S&P	BBB- (2011.6)	BBB- (2010.8)
Moody's	Baa3 (2011.3)	Baa3 (2009.12)
Fitch	BBB- (2011.9)	BBB- (2010.6)

- OECD도 2008년 6월 국가위험도평가회의(CRE)에서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 및 무역 상대국 다변화 성공,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3년 만에 다시 한 단계 상향조정함.
- 2008년 7월에는 S&P가 재정수지 개선과 대외부문 변동성 감소로 경제 리스크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인 점 등 전반적인 거시 경제 환경이 건실해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Baa3로 상향조정함.
- 2008년 8월 Moody's 또한 국내시장 조달자금으로 외채를 조기상환 하면서 정부의 외화표시채무가 크게 감소하였고, 금융권 여·수신의 달러표시 비중도 최근 들어 감소세에 있어 페루의 외환관련 신인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Ba1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한 단계 추가 상향조정함.

3.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최고부보율 적용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3. 04. 01. 수교 (북한과는 1989. 11. 21.)
- 주요협정: 통상협정('76), 사증면제협정('82), 문화협정('83), 경제과학기술 협력협정('84), 투자보장협정('93), 어업협력협정('96), 관광협력 협정('02), 범죄인인도조약('05), 자유무역협정('11)

<표 5>

한·페루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720,004	641,426	944,438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판
수 입	903,894	919,364	1,038,932	동광,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합 계	1,623,898	1,560,790	1,983,470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은 2001년 1억 8천 8백만 달러에서 2010에는 9억 4천만 달러로 지속 증가해 왔으나, 對페루 수입은 2001년 1억 1천 6백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10억 4천만 달러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 교역구조는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와 농수산물을 수입 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형태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對페루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경유, 화물자동차, 휴대폰, 타이어, TV 등이며, 對페루 주요 수입품은 동광, 아연광, 연광 등 광물과 오징어, 커피 등 농수산물임.
-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페루 투자는 신규법인수 42건, 투자금액 7억 7천 5백만 달러임. 페루는 우리나라 3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파나마, 멕시코에 이어 4위의 투자대상국임.

V. 종합 의견

- 페루는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 까미세아 가스전 프로젝트 및 광물 개발 프로젝트 추진, 미국과의 FTA 체결 등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율, 재정수지 개선 등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개방, 경제자유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S&P, Moody's, Fitch 등 민간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 인프라 부족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외채잔액 축소,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대외지급능력 및 국제신인도 부문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문의 : 책임조사역 이기수(☎3779-5719)

E-mail : real_ksl@koreaexim.go.kr